

# 2025년 추석 가정예배문

## ■목도

##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명절을 맞아 우리 가정을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신명기 6:6~7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설교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단 순히 풍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연대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같은 집합시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이유는 온라인 전환과 소비 패턴 변화 때문입니다.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흐름은 교회와 가정에도 도전을 줍니다. 대형교회가 건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며 “꼭 모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저출산, 비혼, 이혼 증가로 인해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인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더 이상 낫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했습니다. 가정은 돌봄과 교육, 정서적 지지와 책임을 이루는 최소 단위이며, 세대를 잇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써 반드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은 무너지가는 가정과 공동체를 다시 세울 힘을 줍니다. 우리가 명절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가정을 붙들고, 믿음을 전수하며, 정서적 연대를 지켜내는 영적 실천입니다. 바쁘고 흩어진 세상 속에서도 명절만큼은 꼭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성 / 김용민 목사



2025년 9월 28일  
통권 13권 29호  
창조절 4주일

2025년 병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병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민에스더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병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에베소서 6:6

# 주일에배순서

오전 11시

사회 김정은 집사

찬양팀

인도 오광석 전도사

## ■ 찬양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운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가사는 모니터 또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 ■ 징 울리며 목상하기

정방남 원로

## ■ 신앙고백

일어서서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 찬송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가 날 피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보이는 천국 나 들어가 한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 ■ 기도

우명희 집사

## ■ 성경봉독

이사야 10:12~16

12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앗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13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14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옮겼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

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15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뿔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16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 설교

이사야 10장은 BC 8세기, 근동을 제패한 앗수르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앗수르는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으로 불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보병·기병·전차병, 공성무기까지 갖춘 상비군을 운영하며, 항복하지 않는 도시는 철저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민족적 정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산헤립 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에게 앗수르는 “저항하면 멸망, 복종하면 조공”이라는 두려움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사야 10장은 먼저 유다의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10:1~4). 그들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짓밟고 불공정한 법령을 제정하며 사회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해도 불의와 압제 속에 있으면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앗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10:5~11). 제국의 군사력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앗수르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과신하며 스스로를 절대자로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10:12~19). 마지막 부분(10:28~34)에서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문턱까지 이르지만,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찍듯 그들을 꺾으시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앗수르의 군사력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도구로 쓰실 뿐, 결국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둘째, 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쓰실 수 있으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 할 때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도 불의에 빠지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사회적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역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서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강대국에 의존하다 식민지의 길을 걸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흔들리기 쉬운 현실을 맞이합니다. 이때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외교적 지혜와 국방 전략을 고민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하면, 외부 강대국 앞에서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는 목자의 리더십,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도자에게 요구하십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고 제국조차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대국의 횡포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힘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지도자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만을 참된 의지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광고

사회자

■ 파송곡

일어서서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축도

김용민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눔 사사기 2:10~19 쳄버퀴 도는 백성들 오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메디피아공간대어 갈라디아서 6:11~18 하나님 백성의 표식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예배** 수 오후 7시 📺

찬양	돈으로도 못가요
본문	욥기 18장
설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월	창세기 47장 야곱의 마지막 요청
화	창세기 48장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하는 야곱
수	사무엘상 4장 우리의 언약궤
목	마태복음 1:1~17 예수님의 족보
금	마태복음 1:18~25 예수님의 탄생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지하철 3호선 삼성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마일버스 삼성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11회 9월 25일(목) 3:00 • LIVE**

**구약도 다 외우고  
경전도 다 외우고?**

한국 사회는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민속 신앙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까요? 그 문제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 교회소식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든 교우들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가족예배문을 1면에 실었습니다.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원 평화나비 특강**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원 평화나비 인권강사인 이해정 집사의 '일본군 '위안부' 기억을 잇는 연대, 정의를 향한 약속' 강의를 있습니다. 전교우의 참여를 바랍니다. 강연 후 월례 운영위원회의가 있습니다.

**서울북노회 강북시찰회** 모레 30일(화)에는 서울북노회 강북시찰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10월 11~12일에는 인천 강화 일대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청년부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경택 서예은 교우 합격** 미술학도인 이경택 서예은 교우가 이탈리아 유학을 위한 현지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 10월 19일에는 올해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가 있습니다. 교인 의무 수강인 만큼 모두 참여하기 바랍니다. (강사 : 박지호 갈등전환센터장)

**성탄절 연합성가대** 12월 25일 오후 성탄절 당일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서울북노회 교회들의 연합 성가대 공연이 있습니다. 다음 연습은 10월 12일 한빛교회입니다.

**인문 사회학적 성서 읽기** 오후 1시부터 이용수 전도사 인도로 진행합니다.

**가을 심방 신청** 가을 담임목사가 신청하는 교우들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심방합니다. 교회 휴대전화 (010-9341-2012)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미혜 장로 취임식** 양미혜 집사의 장로 취임식을 노회 보고 후인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9월 교회 십일조 필리핀 타클로반 선교	9월 안내 청년부	지난주 헌금액 2,606,000원
--------------------------	--------------	-----------------------